

외국인근로자 '대출한도조회 이벤트'

전북은행-한페스, 대출한도조회 시 총 2천명에 CU 편의점 쿠폰·한페스 해외송금쿠폰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외국인 해외송금플랫폼 '한페스'와 오는 10월까지 외국인고객 대상 '대출한도조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의 외국인 대상 금융상품인 JB브라보코리아 대출상품의 취급노하우와 한페스의 해외송금전문 플랫폼 경쟁력이 결합한 공동 마케팅으로서, 한페스 모바일앱에서 전북은행 배너를 클릭해 대출한도 조회를 진행한 고객에게 △CU 모바일 쿠폰 5,000원과 △해외송금 쿠폰



2매를 각각 앱에서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한페스 앱에서 전북은행 JB브라보 코리아 대출상품의 배너를 통해 비대면 대출한도 조회를 진행하면 자동 응모되며, 캄보디아, 네팔을 포함한 총 16개 국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정상훈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대출심사와 전자금융가입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이 편리한 한페스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종합금융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JB브라보 코리아 패키지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상대적 금융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온 외국인 대상 포용적 금융 확대의 선두 주자로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개발공사(시장 최정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2일 임직원이 함께 김제 전통시장을 찾아 정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전개공,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추석맞이 김제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

전북개발공사(시장 최정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2일 임직원이 함께 김제 전통시장을 찾아 정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심리 위축,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정보기 행사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온누리 상품권과 장바구니를 활용해 농축산물 제수용품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했다.

공사는 매년 명절마다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보기 행사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 경영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정호 시장은 "추석맞이 정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통하여 더 나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행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추석명절 맞이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품 지원 행사를 진행해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경진원은 지난 10일과 12일 아가페정 양원과 전주요양원, 전북자녀봉사센터를 찾아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

농어촌공 전북, 추석맞이 '농지은행사업' 집중 홍보

쌀 소비촉진 위한 '엄마아빠의 햇살' 가래떡 나눔행사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12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행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전주역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소개하고, 이어서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위해 우리쌀로 만

든 가래떡을 나누주는 '엄마아빠의 햇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서 전북본부는 출근길 직장인들과 곳곳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나눠주고, 소외계층에게 우리쌀로 만든 식품을 제공하는 등 쌀 소비촉진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홍보와 사업지원을 통하여 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농지은행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경안 새만금청장, 비음2 변전소 건설 현장 방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비음2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작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완공 시기를 약 1년(2026년 10월~2025년 12월) 앞당긴 비음2 변전소를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조실·산업부·한전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조기에 준공(2028년→2026)하기로 한 비음3 변전소 건설도

조속히 추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적기 공급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건설, 공동관로 구축,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 반영된 것을 계기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 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5대 기업지원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대 기업지원 정책으로 △급증한 기업의 투자수요에 대응해 산업용지 확대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구축 △근로·정주 여건 지속 개선 △민간투자를 촉진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이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한전 익산지사, 추석 명절맞이 봉사활동

소외계층 150세대에 풍요로운 한가위 꾸러미 전달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건중)는 지난 12일 관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익산 부승종합복지관, 어머니 봉사단 등과 함께 협업체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명절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계층에 온정을 전하고자 진행된 '추석 명절맞이 풍요로운 한가위' 봉사활동은 한전 익산지사 사회봉사단 8명이 부승종합복지관 봉사단과 함께 아침부터 명절 음식을 직접 조리해 영양제 등과 함께 소외계층 각 세대를 방문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 익산지사 김건중 지사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전 익산지사 또한 고민하겠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적 봉사활동으로 ESG 사회적 가치경영을 실천하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종합사회복지관 정희성 관장은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지방환경청, 아동복지시설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추석을 맞이해 익산 시온유아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온유아원은 1956년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으며, 전북지방환경청은

23년 추석 이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쌀, 화장지 등 생필품과 빵을 전달하였다. /김육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